근대 일본 통신교육의 전개와 안내 책자의 위상에 관한 시론 -

『와세다중학강의』, 『정칙중학강의록』 안내 책자를 중심으로*

최호영 (강원대학교, 부교수)

〈목 차〉

Ⅰ. 서론 : 독학자의 출현과 근대 통신교육의 성립
Ⅱ. 근대 통신교육의 인프라와 안내 책자의 성격
Ⅲ. 통신학교의 상호 참조 관계와 특성화 전략
Ⅳ. 통신교육의 원천과 대내외적 교육이념
Ⅴ. 결론 : 근대 통신교육과 안내 책자의 자료적 가치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근대 일본 통신학교에서 간행한 안내 책자에 초점을 맞춰 당대 통신교육이 전개되어 간 방식을 고찰하고자 했다. 근대 일본에서는 입신출세의 분위기 아래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독학자를 위해 여러 통신학교가 설립되고 각종 중학강의록이 발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와세다대학과 대일본국민중학회의 안내 책자를 발굴하여 근대 일본 통신교육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쟁점 사항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당대 통신학교에서는 타 통신학교와 상호 참조 관계를 형성하여 통신교육의 균일화, 평준화뿐만 아니라 상대화, 특수화를 운영 전략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당대 통신학교에서는 서구 통신교육 및 최신식 교수·학습법과 문부성 교육령 및 천황제 가족주의를 교육이념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키워드 : 통신교육, 독학자, 통신학교, 중학강의록, 안내 책자, 특성화 전략, 교육이념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A2A01006453)

www.kci.go.kr

ⓒ 2026 이화인문과학원

Ⅰ. 서론 : 독학자의 출현과 근대 통신교육의 성립

교육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근대교육의 출현과 전개는 이른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인 인정을 획득하려는 입신출세의 목적과 연동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메이지유신(1868년) 이후 일본 정부에서 서구 열강을 따라잡고 단일한 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근대화 작업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교육 행정기관으로서 문부성을 설치하여 다방면으로 종래의 도덕주의적·유교주의적 교육 환경을 쇄신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1872년 학제(學制)를 반포하는 등 전국적으로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고, 효율적인 교육 행정 체재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함에 따라 교육을 통해 근대 사회를 창출하려는 과제를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일본 정부에서는 사람들의 내면에 뿌리내린 전통적 교육관을 바꾸기 위해 '학문은 입신의 재본(財本)'이라는 입신출세를 내세우며 국민과 근대학교의 결속력을 강화해갔다. 특히, 입신출세라는 사회 풍조는 1900년 소학교령 개정을 계기로 의무교육 제도가 성립·실현한 이래 중학교 졸업이 곧 입신과 성공의 기본 조건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간 것이다.[1)]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시도와는 달리 실상 소학교를 졸업한 대다수 청소년이 중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을 달성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제로 문부성 조사 보고에 따르면, 근대 일본에서 중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률은 메이지 28년(1895)에 남자 5.1%, 여자 1.3% 평균 4.3%에 불과했다가 다이쇼 9년(1920)에 남자 19.7%, 여자 11.5% 평균 15.8%로 1할대에 들어와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쇼와 15년(1940)까지 남성 28%, 여성 22% 평균 25%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2)]

1) 근대 일본에서 추진된 교육개혁의 전반적인 동향과 분위기에 관해서는 쓰지모토 마사시·오키타 유쿠지 외 (2011), 『일본교육의 사회사』, 이기원·오성철(역), 경인문화사, 351~442쪽; 가타기리 요시오·기무라 하지메 외 (2011), 『일본 교육의 역사—사회사적 시각에서』, 이건상(역), 논형, 101~198쪽 참조.

www.kci.go.kr

아마도 이 현상에는 학습자의 수요에 비해 학교 수가 부족한 것과 같은 물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가정적 여건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개입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청소년들의 향학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제도권 바깥에 있으나 제도권 교육에 준하는 통신교육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즉, 통신교육은 민간 교육 단체인 통신학교에서 여러 사정으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특정한 교과 내용을 담은 교재인 강의록을 발행하여 이들이 자학자습(自學自習)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식을 가리킨다. 근대 일본에서 이와 같은 통신교육이 상당한 규모로 발달해감에 따라 이른바 독학자(獨學者)들이 중학교 정도의 학력을 얻을 수 있는 중학강의록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국내 학계에서 근대 일본의 통신학교와 중학강의록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못했으나, 일본 학계에서는 이에 관한 몇몇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먼저, 아마노 이쿠오의 논의는 주로 '학력주의'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자격 취득과 선발이라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중학강의록의 위상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사회에서 독학은 학력=교육 자격에 준하는 자격의 습득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지위 달성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출현하였고 중학강의록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전개되어 갔다. 이 논의에서는 특히 당시 중학강의록의 위상이 190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국가시험을 목표로 하는 자격 취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 이후에는 중등 수준의 학력에 준하는 교육 자격의 취득이나 실용적인 직업 지식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동해갔다고 보고 있다.[3] 다음으로, 스가와라 아키요시의 논의는 근대 일본 통신학교의 운영 현황과 중학강의록의 출판 동향을 구체적으로

2) 関本仁 (2024), 「『早稲田中学講義』に関する一考察—『早稲田高等女子学講義』との比較から」, 『民衆の感じる痛みに応えようとして生まれた自由大学』, エイデル研究所, 2024, p. 160 참조.

3) 天野郁夫 (1996), 「独学と講義録」, 『日本の教育システム—構造と変動)』, 東京大学出版会, pp. 253~278.

www.kci.go.kr

추적하는 가운데 당시 독학자의 학습 동기와 관련하여 중학강의록의 특질을 해명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앞서 아마노 이쿠오가 독학자의 학습을 자격 제도와 같은 사회 구조에 환원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이를 '순수한 향상심·향학심의 맹아'로 봄에 따라 중학강의록의 위상에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4)]

이러한 논의를 통해 근대 일본에서 중학강의록이 차지하는 역사적·문화적 문맥이 드러나고, 당대 통신학교의 실체와 중학강의록의 성격이 실증적으로 밝혀질 수 있었으나, 여전히 통신교육의 전개에 관여한 제반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봐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 지점에서 세키모토 히로시의 최근 논의는 앞선 논의들이 주로 신문 기사의 평가, 수험잡지의 광고, 기관지의 수험기 등을 활용한 것과 달리 통신학교 안내 책자(guidebook)의 연구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논의에서는 특히 안내 책자의 내용을 근거로 와세다대학에서 간행한 『와세다중학강의』와 『와세다고등여학강의』를 비교 고찰함에 따라 당시 배움에 대한 학습자들의 공통된 의식이 젠더 문제를 둘러싸고 굴절되어가는 양상을 살피고 있다.[5)] 하지만 이 논의에서 역시 특정한 통신학교를 보조하기 위한 단편적인 자료가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관점에 따라 생성 중인 통신교육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안내 책자에 접근할 필요성을 남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근대 일본의 통신학교에서 간행한 안내 책자를 중심으로 하여 당대 통신교육이 전개되어 간 방식을 고찰하고자 하는 시론적 연구에 속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와세다대학의 『와세다중학강의 견본 부 규칙서』와 『와세다중학강의 임시증간』, 대일본국민중학회의 『정칙중학강의록 학제일람 임시증간』 발굴자료를 대상으로 안내 책자의 구성, 유형, 위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시대별 안내 책

4) 管原亮芳 (2014), 「「独学」史講試論—中学講義録の世界をめぐって」, 辻本雅史編, 『身体・メディアと教育』, 日本図書センター, pp. 293~309.
5) 関本仁 (2024), pp. 152~161.

www.kci.go.kr

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운영 주체별 안내 책자의 전략을 비교 고찰함에 따라 근대 일본 통신학교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쟁점 사항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II. 근대 통신교육의 인프라와 안내 책자의 성격

앞서 언급했다시피 근대 일본에서 이른바 통신교육은 근대화를 통한 국민국가의 수립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애초 고등교육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설립된 사립전문학교에서 서구의 근대적인 학문을 수용하여 이를 기초로 한 체계적인 지식 장을 구축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강의록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효시는 오늘날 주오대학(中央大學)의 전신인 영국법률학교(英吉利法律學校)에서 간행한 법률학 강의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영국법률학교에서는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강의록을 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자에게도 이를 인쇄하여 배부한 것이다. 강의록을 통한 이러한 통신교육은 당시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을 제외하고, 센슈대학(專修大學), 호세이대학(法政大學), 도요대학(東洋大學),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學) 등 대부분의 사립전문학교에서 동참했을 만큼 굵직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물론 초창기 강의록들은 대학 커리큘럼과 연동하여 법률, 정치, 행정 등 주로 신지식과 실용적 차원의 학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상기 사립전문학교에서 추진한 '대학 확장(university extension)'과 맞물려 다양한 영역의 강의록이 추가되는 가운데 중학강의록이 대표적인 강의록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6] 이에 따라 당시 통신교육을 받는 독학자들은 정규 과정에 소속된 교내생과 구별하여 교외생이라는 별도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각 전문학교에서 해마다 교외생 숫

6) 廣木尙 (2016),「(2016年度 春季企画展) 早稲田の通信講義録とその時代 1886-1956」, 早稲田大学大学史資料センター, pp. 217~220.

www.kci.go.kr

자는 급증해갔다.[7]

이처럼 근대 일본에서 통신학교와 중학강의록은 독학자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음에 따라 일종의 독학 붐을 형성하는 데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 통계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험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발행된 잡지 중에서 『소년세계』의 경우 메이지 중·후반에 총 100여 개의 각종 강의록 광고가, 비슷한 시기에 『중학세계』에서는 총 120여 개의 각종 강의록 광고가 게재되어 있거니와 다이쇼 기에서 쇼와 전기까지 『소년구락부』에서는 총 160여 개의 각종 강의록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8] 물론 여기에는 오로지 중등교육을 표방하는 중학강의록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나, 당시 본격적인 중학강의록의 시대를 구가한 대표적인 통신학교로는 바로 도요대학, 그리고 이 글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와세다대학, 대일본국민중학회(大日本國民中學會)가 손꼽힌다. 이 중에서 도요대학과 와세다대학은 당시 사립전문학교로서, 먼저 도요대학에서는 메이지 30년(1897) 전신 철학관(哲學館)에서 5종류의 강의록 중 하나로 『심상중학과강의록(尋常中學科講義錄)』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추후 『신식중학강의록(新式中學講義錄)』으로 개칭하였고, 다음으로 와세다대학에서는 메이지 39년(1906) 전신 도쿄전문학교(東京專門學校)에서 『와세다중학강의』를 발행하여 '독학자로서 학습 매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달리 대일본국민중학회는 이른바 민간 통신교육 기관으로서 메이지 35년(1902) 『정칙중학강의록(正則中學講義錄)』을 발행하고 다이쇼 15년(1926)에는 재단법인 공민교육회(公民教育會)로 변경해가는 가운데 '중견 국민으로서 완결적 교양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다.[9]

하지만 근대 일본에서 통신교육은 이러한 통신학교의 성립과 중학강의록의 출현이라는 단일한 현상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정이 개입

7)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통신교육이 출현하고 중학강의록이 성립하게 된 전반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天野郁夫 (1996), pp. 255~260 참조.
8) 菅原亮芳 (1994), 「中学講義録の世界」, 『研究報告』, 40, pp. 45~57.
9) 근대 일본에서 대표적인 통신학교와 중학강의록의 세계를 조명한 논의로는 菅原亮芳 (1994), pp. 59~75.

www.kci.go.kr

해 있다. 거기에는 통신학교의 실체와 중학강의록이라는 교재를 생산해내는 데 다양한 인적 조건과 물적 조건이 직·간접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내연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내부적 조건과 외부적 조건이 암암리에 작동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당시 통신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관여한 조건과 구성 요소를 구조화하자면 아래와 같이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구분	조건	구성 요소	속성
통신교육 인프라	통신학교 (조직)	규칙 및 학제	체계성
		구성원과 강사진	전문성
		대외 활동	확장성
		기관지	확장성, 결속력
	중학강의록 (교재)	교과서 및 독본	구체성, 표준화
		강사진 연구물	구체성, 전문성
		분야별 출판물	구체성, 연계성
	미디어 (사회적 인식)	신문·잡지의 광고	확산성
		신문·잡지의 기사	확산성, 공공성
		학습자의 수기 및 수험기	연결성, 결속력

(표 1) 통신교육 인프라의 조건과 세부 구성 요소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일본에서 통신교육의 인프라는 편의상 통신학교, 중학강의록, 미디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에 따라 구성되고, 각각의 조건들 또한 다양한 속성을 지닌 세부 요소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통신학교는 통신교육의 가시적인 실체라 할 수 있는 조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칙 및 학제, 구성원과 강사진, 대외 활동, 기관지 등의 구성 요소에 따라 그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이 중에서 규칙 및 학제는 통신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일종의 원칙으로서, 목적, 입학

www.kci.go.kr

및 졸업, 학비, 우대사항, 주의사항을 비롯하여 학년별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통신교육의 목적을 감안했을 때 통신학교의 규칙 및 학제는 정규의 중등학교 교육, 즉 문부성의 교육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한 가운데 통신학교마다 질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성원과 강사진은 통신학교의 조직을 구성하는 인적 성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체로 회장(총재), 학감, 이사, 강사 등을 포괄하고 있다. 물론 해당 통신학교에서 표방하고 있는 교육이념은 당시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구성원 간의 인적 네트워크 같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다음으로, 앞서 학제 및 규칙, 구성원과 강사진이 통신학교의 내부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외 활동과 기관지는 통신학교의 조직을 외부적으로 개방하려는 활동 방법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외 활동은 지역 강연회, 순회도서관 운영 등 통신학교 소속의 교외생을 대상으로 유익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이며, 기관지는 통신학교 자체에서 발행한 잡지로서 강사진부터 교외생에 이르는 구성원의 글을 수록함에 따라 통신학교에 대한 결속력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이런 점에서 통신학교는 체계성, 전문성, 확장성, 결속력을 꾀하려는 여러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학강의록은 통신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교과서 및 독본, 강사진 연구물, 분야별 출판물 등의 구성 요소에 따라 그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통상적으로 중학강의록은 수신, 국어 및 한문, 영어, 역사, 지리, 수학, 박물, 물리 화학, 도화, 체육, 법제 경제 등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수학 기간은 정칙 과정의 경우 2년 반에서 1년, 속성 과정의 경우 1년 반에서 6개월로 정해져 있다. 물론 이러한 커리큘럼은 문부성의 교육령을 준거로 하여 정규 중학교 5년의 교육과정을 압축해놓은 것이나, 엄밀히 말해 그것의 교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담론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 그중 하나로, 당시 정규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이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교과서 및 독본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정칙중학강의록 학제일람 임시증

www.kci.go.kr

간』의 「국어 강의」에 수록된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遥)의 『자연의 음악(自然の音楽)』이라는 글은 당시 『국어 한문과 독본 자해(国語漢文科読本字解)』(메이지 36년), 『신정 중등 독본 자해(新訂中等国語読本字解) 제1권』(메이지 42년), 『여자 수양 독본(女子修養読本) 을종』(메이지 44년) 등에 수록되었을 만큼 대표적인 강독 텍스트로 유통되고 있었다. 다른 하나로, 중학강의록의 교과 내용은 담당 강사가 해당 분야에서 축적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예시로, 『와세다중학강의』에서 이가라시 치카라가 담당한 「작문 강의」의 내용은 그가 와세다대학에서 강의한 연구 결과,[10] 즉 『신문장 강화(新文章講話)』(메이지 44년), 『중등 신작문(中等新作文)』(다이쇼 6년) 등에 의존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로, 중학강의록의 교과 내용은 당시 출판 시장에서 유통되었던 분야별 전문 서적을 참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와세다중학강의』의 「국문학사 강의」에서 히사마츠 센이치(久松潛一)가 시대, 형태, 장르 등의 측면에서 문학사의 서술 방법에 관한 참고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11] 이처럼 중학강의록은 교과 내용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표준화, 전문성, 연계성을 꾀하려는 여러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미디어는 통신학교의 내·외부를 연결하여 통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촉진하고자 했던 매개체로서, 주로 신문·잡지의 광고 및 기사, 학습자의 수기 및 수험기 등의 구성 요소에 따라 그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인류 사회에서 문자언어를 통한 소통은 대량 생산성을 가진 인쇄매체를 통해 지식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통신학교 또한 그러한 매체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통신교육의 보급에 힘쓰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통신학교에서는 근대의 대표적인 대중매체인 신문과 잡지에 중학강의록에 관한 광고를 빈번하게 싣고 있거니와 그에 관한 기사를 활용함에 따라 통신교육을 둘러싼 담론장을 구축하

10) 五十嵐力 (1905), 『文章講話』, 早稲田大学出版部, p. 1.
11) 최호영 (2025), 「한일 중학강의록의 영향과 한국 근·현대 문학의 전개에 관한 시론(試論)—『(조선)중학강의록』의 구성원과 조지훈의 활동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26, 150~151쪽.

www.kci.go.kr

고자 했다. 이를테면, 내각부의 기관지『관보』2940호(다이쇼 11년)에서는 대일본모범중학회(大日本模範中學會)의『모범중학강의록』에 관한 광고를, 그리고 출판사 실업지일본사(実業之日本社)에서 펴낸『실업의 일본(実業の日本)』29권 11호(쇼와 1년)에서는 대일본국민중학회의『정칙중학강의록』과『고등여학강의록』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물론 통신학교의 대외 홍보를 꾀하려는 이러한 확산성은 신문 기사라는 사회적 여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반되는 현상을 낳기도 했다. 바로 대일본국민중학회에서 당시『만조보(萬朝報)』등 신문에 수록된 통신학교 소개 기사를 기관지『신국민』에 재수록한 사례에서 나타나듯,[12] 통신학교에서 당대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통신교육에 관한 긍정적인 반응을 조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험잡지『학생 타임스』에 수록된 한 기사에서 중학강의록을 과대 포장하고 있는 허위성을 비판하고 있는 사례에서 드러나듯,[13] 당대 여론에서 애초 목적과 괴리된 통신교육의 실상에 대한 우려 역시 표출되기도 했다. 또 다른 하나로, 당시 독학자들이 여타 수험잡지나 출판물에 수록한 중학강의록 수학기와 각종 시험 합격기 또한 통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활성화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담당했다.[14] 이런 점에서 미디어는 확산성, 공공성, 연결성, 결속력을 꾀하려는 여러 세부적인 구성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대 일본에서 통신교육의 인프라는 통신학교, 중학강의록, 미디어와 같은 조건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중층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당시 통신학교에서 꾸준하게 발행한 안내 책자(guidebook)는 단순히 해당 통신학교와 중학강의록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전파하기 위한 홍보용 자료임을 넘어 근대 통신

12) 無記名 (1906),「中学講義録の内容」,『新國民』, 3(2), pp. 35~37.
13) 天使救世軍 (1906),「中学講義録の無責任」,『学生タイムス』, 7, pp. 8~9.
14) 이에 관한 사례로는 마쓰오 마사나오라는 인물이 열악한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일본국민중학회의 강의록을 통해 본격적인 배움에 눈을 뜬 이후 신문 주필이 되기까지의 체험을 담은 수기를 들 수 있다. 松尾正直 (1917),「おお大日本國民中學講義録よ」,『苦学十年』, 国民書院, pp. 47~52.

www.kci.go.kr

교육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중요성을 띤다. 실제로 안내 책자를 살펴보면, 앞서 거론한 통신교육의 조건과 그 세부적인 구성 요소와 같은 통신교육의 실체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안내 책자는 해당 통신학교가 설립되었을 때라든지 신학기 개시를 앞두고 교외생을 모집할 때라든지 기존의 강의록을 전면 개정한 때에 맞춰 발행되었으나, 엄밀히 말해 그것의 종류에 따라 정보 전달의 성격과 지향점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대 일본의 통신학교에서 간행한 안내 책자는 '견본 부 규칙서(見本附規則書)', '임시증간(臨時增刊)', '학제일람(學制一覽) 임시증간'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도판 1)『와세다중학강의 견본 부 규칙서』 표지



(도판 2)『정칙중학강의록 학제일람 임시증간』 표지

먼저, '견본 부 규칙서'는 해당 통신학교의 규칙과 학제를 비롯하여 통신학교의 운영 방법과 전략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책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독학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편성 학과의 일부 강의

www.kci.go.kr

내용에 관한 견본을 수록하고 있으나, 사실상 앞서 언급한 통신교육의 조건 중 중학강의록보다 통신학교에 치중한 경우라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애초 통신교육의 목적 자체가 중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획득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자연스레 통신학교에서 정규 중등학교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견본 부 규칙서'에 담긴 주요 내용이 동시대에 설립된 사립중학교 규칙서에 나오는 구성과 거의 흡사하다는 점에서,[15] 당시 통신학교가 사립중학교의 시스템에 준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임시증간'은 해당 통신학교에서 발행하는 중학강의록의 강의 내용과 특징을 두드러지게 담아낸 책자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앞선 '견본 부 규칙서'에 제시된 핵심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으나, 엄밀히 말해 통신교육의 조건 중 통신학교보다 중학강의록에 치중한 경우라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통신교육이 결국 중학강의록이라는 교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독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강의 내용을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를 드러내듯, 『와세다중학강의 임시증간』에서는 상업, 정치 경제, 법률, 문학, 전기공학, 건축 등 학문별로 강의 내용 견본을 증정하겠다는 광고를 싣고 있기도 하다.[16] 마지막으로, '학제일람 임시증간'은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앞선 '견본 부 규칙서'와 '임시증간'을 절충한 형태의 책자라 할 수 있다. 이 책자에는 해당 통신학교에 관한 다채로운 정보뿐만 아니라 중학강의록의 다양한 강의 내용 견본을 수록하고 있기에 앞선 두 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편이다.

이처럼 근대 일본의 통신학교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안내 책자 중에서 상황과 시기에 부합하는 안내 책자를 발행함에 따라 더 많은 독학자를 포섭하고자 했다.

15) 이에 관한 사례로 당시 아오야마학원과 메이지학원의 규칙서에서 '학제 및 학과 안내'(목적, 학년 학기, 입학 퇴학, 시험, 학비, 기숙사, 결석, 벌칙, 장학금, 생도 심득 등)와 '학과 과정표'를 소개하는 데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青山學院 (1898), 『青山學院尋常中學部高等普通學部一覽』, pp. 3~17; 明治學院 (1898), 『明治學院高等學部尋常中學部一覽』, pp. 6~28.

16) 早稲田大學出版部 (1935), 『早稲田中學講義 臨時增刊』, p. 24.

www.kci.go.kr

Ⅲ. 통신학교의 상호 참조 관계와 특성화 전략

앞에서 우리는 근대 일본에서 출현한 통신교육 인프라의 구조와 당시 통신학교에서 발행한 안내 책자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근대 일본의 통신교육이 통신학교, 중학강의록, 미디어와 같은 조건들이 상호작용하여 탄생한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각각의 조건들이 다양한 속성을 지닌 세부 구성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당시 통신학교에서 주기적으로 발행한 안내 책자에서 이러한 중층적인 통신교육 인프라를 여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안내 책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통신교육의 전개 과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안내 책자의 유형을 고려하되, 시기별, 운영 주체별 특성에 주목하여 근대 통신교육의 정체를 바라볼 수 있는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발굴자료 중에서 『와세다중학강의 견본 부 규칙서』, 『와세다중학강의 임시증간』, 『정칙중학강의록 학제일람 임시증간』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17] 『와세다중학강의 임시증간』과 『정칙중학강의록 학제일람 임시증간』의 경우 사립전문학교와 민간 통신교육 단체와 같이 운영 주체별 통신학교의 특색과 전략을 비교 고찰할 수 있으며, 『와세다중학강의 견본 부 규칙서』과 『와세다중학강의 임시증간』의 경우 시기별 같은 통신학교의 체제와 운영 방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근대 통신교육의 정체에 관한 쟁점 사항 중 하나로, 당대 통신학교에서 타 통신학교와 상호 참조 관계를 형성하며 운영 전략을 구체화해갔다는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실제로 당시 안내 책자를 검토해보면,

17) 참고로 『와세다중학강의 견본 부 규칙서(早稲田中學講義 見本附規則書)』(早稲田大學, 1914. 8)는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있고, 『와세다중학강의 임시증간(早稲田中學講義臨時增刊)』(早稲田大學出版部, 1935. 5)과 『정칙중학강의록 학제일람 임시증간(正則中学講義録学制一覧 臨時增刊)』(大日本国民中學會, 1907. 10)은 일본의 고서점에서 필자가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다. 이하 『早稲田中學講義 見本附規則書』, 『早稲田中學講義臨時增刊』, 『正則中学講義録学制一覧 臨時增刊』이라 표기하고 쪽수만 명시함.

www.kci.go.kr

"무비(無比)의 독학 기관" 혹은 "그밖에 이러한 종류가 없는 강의록"이라 한다든지[18] 현행 중학강의록에 관한 "세간의 비난"을 받아들여 강의록의 "근본적 대 개량"을 실시하려 했다는 언급을[19]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당시 통신학교에서 조직을 정비·운영하고 중학강의록을 쇄신·발행할 때 여타 통신학교의 사정을 적잖이 의식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첫 번째로, 당시 통신학교에서는 다른 통신학교에서 통용해오던 운영 방식 중 일부를 수용하여 통신교육의 균일화, 평준화를 지향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두 번째로, 다른 통신학교에서 추구해오던 운영 방식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전략을 내세움에 따라 상대화, 특수화를 지향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안내 책자의 내용을 통해 각각의 사항을 살펴보자.

> (가) 저녁매미의 소리가 석양에 가라앉으면, 송충(松蟲), 방울벌레, 여치, 귀뚜라미 등이 울기 시작한다. 혹은 금속판을 치는 것과 같이, 혹은 금방울을 흔드는 것과 같이. **개구리, 매미, 벌 등 모두 저마다 음악을 연주한다.** 풀을 부는 바람, 나무를 부는 바람, 하늘 높이 부는 **바람 등, 바람도 각각 그 음색을 달리한다.** 혹은 거문고와 같이, 혹은 생황의 피리와 같이, 혹은 필률(篳篥)과 같이.
>
> —「국어강의」 부분[20]

> (나) […] 확실히 산은 열렬한 생의 힘의 조화에 따라 전부 에워싸여 있다. 우리는 그것을 육안을 통해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일종의 영기(靈氣)로서 느낄 수 있었다. 숨어있는 노력의 위압이 신비의 그림자마저 띠고, 우리에게 경건의 정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
> 나는 노수(老樹) 앞에서 뿌리가 얕은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이리하여 지하의 조화에 몰두하는 것을 자신에게 맹세했다.** 지금 깨달아도 아직 늦지 않다.

18) 『早稲田中學講義 見本附規則書』, p. 4.
19) 「正則中学講義録要領」, 『正則中学講義録学制一覧 臨時增刊』, pp. 46~48.
20) 大町芳衛, 「國語講義」, 『正則中学講義録学制一覧 臨時增刊』, p. 22. 원문의 번역과 볼드체 표기는 인용자의 것임을 밝히며 이하 생략함.

www.kci.go.kr

—「후기에 게재하는 국어강의의 일절」 부분[21]

먼저, 위의 글들은 서로 다른 통신학교에서 발행한 안내 책자에 수록된 국어강의의 내용 견본으로서 당대 통신학교 간의 상호 참조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흥미롭게도 당시 통신학교의 안내 책자에서는 본 통신학교의 특색과 중학강의록의 장점을 홍보하는 데 적잖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에는 다른 통신학교에서도 표방하고 있을 만한 공통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테면, 통신학교의 측면에서 볼 때, 대일본국민중학회에서는 독학생들이 입회하게 될 경우 저렴한 학비로 본회 제정의 모장과 휘장을 패용할 수 있다거나 본회 내의 도서관은 물론 지방 순회문고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 강의에 관한 질의응답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는 등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싣고 있다. 그리고 매월 강의록 외에 발행한 기관잡지 『신국민』에서 각 방면의 명사나 전문가의 글을 수록하여 독학의 취미와 실익을 더하거나 회원의 창작물을 수록함에 따라 구성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와 함께 본회 졸업자에게는 중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졸업 후에도 본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수한 졸업생에게는 학비 대여와 같은 장학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22] 하지만 이러한 통신학교의 운영 방식은 동시대 와세다대학에서도 표방하던 바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특별한 내용이라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와세다대학에서 "각종 강의의 무료 청강", "본 대학 도서 무료 열람", "졸업증 및 수업증 수여", "상장 및 상품 수여", "급비생으로서 대학 입학", "수업 후 영구의 지도", "서적 할인 및 증여" 등 "10대 특전"으로 제시한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이다.[23] 물론 1930년대에 들어가면 세부 내용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대부분 유

21) 永井一孝,「後期に掲載する國語講義の一節」,『早稲田中學講義 臨時增刊』, p. 18.
22)「本會に入會すれば」,『正則中学講義録学制一覧 臨時增刊』, p. 5.
23)『早稲田中學講義 見本附規則書』, pp. 6~7.

www.kci.go.kr

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4]

마찬가지로 중학강의록의 측면에서도 당시 통신학교에서 표방하던 운영 방식에 일정한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와세다대학에서는 각 분야의 명망 있는 교육자와 학자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강의록을 집필하였기에 독학자들이 업무의 여가를 활용하여 단시간에 중학교 전 학과를 수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제 강의록에서는 어려운 한자 옆에 후리가나를 덧붙임에 따라 개념과 용어의 이해를 도모하거나 회화, 사진, 지도 등 정교한 삽화를 삽입함에 따라 강의 내용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 경향과 통계 결과를 강의 내용에 포함함에 따라 실용적인 지식의 습득을 장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 이외에 여러 교육 전문가가 쓴 강화(講話)를 부록으로 수록함에 따라 독학자들의 학습 내용을 심화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25] 하지만 이러한 중학강의록의 특색 또한 다른 통신학교의 중학강의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지점이라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시대 대일본국민중학회에서 강의록의 대 개량에 관한 방향을 설명하거나 『정칙중학강의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위와 거의 흡사한 사항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26] 물론 당시 와세다대학에서 학습자의 자습법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대일본국민중학회에서 각 학과의 복습용 자습 문제를 제공하는 등 독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통신학교 시스템과 중학강의록 체재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 시도임을 간과할 수 없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당시 통신학교에서 실제 중등교육의 현실을 고려하여 통신교육 인프라를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통신학교의 사정을 적절히 참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신학교 간의 상호 참조 관계는 중학강의록의 내용과 형식을

24) 「早稲田中學講義の六大特色を見よ」, 『早稲田中學講義 臨時增刊』, pp. 4~5.
25) 『早稲田中學講義 見本附規則書』, pp. 8~9; 「早稲田中學講義の六大特色を見よ」, 『早稲田中學講義 臨時增刊』, pp. 4~5.
26) 「本會講義録再度の根本的大改良」, 『正則中学講義録学制一覧 臨時增刊』, pp. 3~4.

www.kci.go.kr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균일화나 평준화를 기본 원리로 하는 텍스트로 구현된다. 첫 번째로, 내용적 차원에서 당시 중학강의록에서는 주로 청소년층에 속하는 독학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인격과 정서를 함양할 만한 강의 내용을 취사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관한 사례로 위에서 인용한 『정칙중학강의록』의 「국어강의」와 『와세다중학강의』의 「국어강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연 친화적 성격이 농후한 작품을 강독 텍스트로 선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중 하나로 (가)의 글은 강의록 여백에서 출처를 밝히고 있다시피 당시 교과서와 독본에 유통되고 있던 쓰보우치 쇼요의 『자연의 음악』에서 일부분을 뽑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해가 질 때 자연 속에 숨은 갖가지 벌레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바람의 소리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주변 벌레의 소리와 바람의 소리를 인간의 악기에 빗대 저마다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것들이 우주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의 글에서는 따로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산" 속에 들어간 한 인간이 우주 자연과 일체화된 신비로운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한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걸쳐 살아남은 노수(老樹)로부터 경건함을 느끼고, 그것과 함께 대지에 뿌리내리고 싶은 강렬한 생명력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당시 통신학교에서는 정규 중학교의 교과에 편성될 만한 강의 내용을 고려하되 독학자들을 건전한 국민으로 양성하는 데 효용성이 높은 강의 내용을 채택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형식적 차원에서 당대 중학강의록에서는 강의 내용을 하위 항목에 따라 세분화하고 지면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학강의록과 흡사한 구조를 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관해 앞서 (가)를 수록한 「국어강의」에서는 원문에 이어 원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 '총론', 그리고 원문 중 난해한 용어와 개념의 뜻을 풀이한 '해석'으로 구성되고, 그 상단 여백에는 특정한 구절에 함축된 의미나 생소한 사물의 특징을 부연 설명한 '각주'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구성 방식은 (나)를 수록한

www.kci.go.kr

「국어강의」에서도 '총론' 대신 '대의(大意)', '해석' 대신 '어석(語釋)'이라는 분류 개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한 원리로 실현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애초 『와세다중학강의』에서 이와 다른 형태의 강의록을 실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와세다중학강의 견본 부규칙서』에 수록된 강의록에서는 대부분 원문 내용을 제시한 다음, 본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볼드체로 표기하고, 상단 각주에는 핵심어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등 원문 본연의 형태를 보존하려는 텍스트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와세다중학강의 임시증간』에 수록된 강의록에서는 대체로 소제목을 붙이거나 하위 항목을 활용함에 따라 강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상단 각주에서 특정 용어와 개념에 관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원문을 구조화하려는 텍스트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마도 『와세다중학강의』에서 시기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요인 중 하나로는 대일본국민중학회를 비롯하여 동시대 여타 통신학교의 중학강의록 체재를 참조하고 유연하게 수용하려 한 점을 들 수 있겠다.

> (다) 수없이 많은 말도 하나의 사실보다 나은 것은 없다. 아니 본회의 강의록이 좋고 이쪽의 강습록이 우수하다고 해도 결국 공론이고, 결말이 나지 않는 논쟁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 와세다대학 강의록이 가치 있는 사실의 증명은 다음과 같은 인물을 배출한 것으로도 분명하다. 이외에도 사소한 사례를 들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공한 사람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본 강의록의 성가(聲價)를 점점 높이고 있다.**
>
> —「말보다 증거, 이렇게 다수의 인물을 제시한다」 부분[27]

> (라) **이 불행한 대다수의 국민을 이끌어 조금이라도 중류 사회를 조직하기에 적당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강의록이라는 것이 나왔다.** […] 이러한 강의록의 시비는 차치하고, 생겨나자 곧 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초가 박약하고 불친절한 것이었을 것만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하루살이 강의록이 성행도 없이 연달아 생겨난다.

27)「論より證據斯く多數の人物を出せり」,『早稲田中學講義 見本附規則書』, p. 12.

www.kci.go.kr

요사이 대일본국민중학회 강의록만은 다른 강의록의 결점을 채워 가장 평이하게, 또 가장 친절하게 작성되어 있다. 강의록으로서는 어떻게 해도 이것을 첫 번째로 추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하의 중학강의록(도쿄 아사히신문 소재)」 부분[28]

다음으로, 위의 글들은 당시 통신학교에서 다른 통신학교의 운영 방식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전략을 내세우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살펴봤듯이 당시 통신학교에서 조직의 체계를 구축하고 강의록의 체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통신학교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게 된 것은 통신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운영 전략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당시 통신학교에서는 교육 시장에서 다른 통신학교보다 더 많은 독학자를 포섭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상대화, 특수화의 원리에 입각한 운영 전략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점은 당시 통신학교에서 중등교육의 현실, 즉 문부성 교육령이라는 대전제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실현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와세다대학에서는 사립전문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통신학교 운영 시 전문성, 연계성, 결속력을 특성화 전략으로 표방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와세다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와세다중학강의』에서 정규 중학교의 5년 과정을 2년 과정으로 수료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운데 전기 1년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강의를, 후기 1년에는 중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수준의 강의를 배치하고 있다.[29] 물론 1930년대에 들어와 매달 2회씩 발행하여 총 24권에 이르던 강의록이 매달 1회씩 발행하여 총 12권에 이르는 형태로 바뀔 뿐, 기존의 학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당시 와세다대학에서는 『와세다중학강의』 담당 과목의 강사진을 대부분 본교 소속의 교수나 다른 사립학교 소속의 교수로 편성함에 따라 전문적인 통신학교의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했다.[30] 이와 함께 교외생이 졸업 후 본교의 각종 전문부

28)「都下の中學講義錄」,『正則中学講義録学制一覧 臨時增刊』, p. 59.
29)「早稲田大學講義録の種類と提要」,『早稲田中學講義 見本附規則書』, p. 1.

www.kci.go.kr

와 전문학교, 그리고 와세다공업학교 등에 특별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본교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와세다동공회(早稲田同攻會)라는 일종의 교우회를 매개로 하여 본교와의 결속력을 높이고자 했다.[31]

이와 달리, 대일본국민중학회에서는 민간 통신교육 단체라는 교육기관의 특성을 활용하여 통신학교 운영 시 효율성, 적합성, 확장성을 특성화 전략으로 표방하고자 했다. 기본적으로 대일본국민중학회에서는『정칙중학강의록』에서 정규 중학교의 5년 과정을 2년 반 과정, 즉 한 학기를 6개월로, 총 5학기에 수료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학교 5년 과정을 각 학기에 배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32] 이러한 정칙 과정과 함께 대일본국민중학회에서는 "단기의 졸업을 편의로 하는 사람"을 위해 앞선 강의 내용을 압축하여 한 학기를 6개월로, 총 3학기에 수료하도록 하는 속성 과정까지 운영하는 효율성을 보여주었다.[33] 이를 위해 당시 대일본국민중학회에서는『정칙중학강의록』담당 과목의 강사진을 대부분 도쿄고등사범학교 부속 중학교 교사, 도쿄부립중학교 교사 등과 같이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현장 교사를 초빙함에 따라 통신교육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34] 이와 함께 교외생이 졸업 후 사립전문학교 입학은 물론 해외유학, 실업전문학교 입학 등 여러 방면으로 진학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지방 회원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통신학교의 확장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통신학교의 운영 전략은 해당 통신학교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과 긴밀히 맞물려 있었다. 실제로 당시 통신학교에서는 외부 인사의 찬사, 교외생 수기 및 수험기, 신문비평, 유력자의 증

30)「早稲田中學講義の學科目と先生」,『早稲田中學講義 臨時增刊』, pp. 6~9.
31)「完全なる講義錄」,『早稲田中學講義 見本附規則書』, p. 5.
32)「第十六回新學期開講」,『正則中学講義録学制一覧 臨時增刊』, pp. 1~2.
33) 참고로 수험잡지『소년구락부』의 광고에 따르면, 대일본국민중학회에서는 1930년대에 들어와 강의록 발행 횟수를 늘리고 기존의 수업 기간을 더욱 단축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 광고에서 본회 3대 강의록 중 하나인『국민중학강의록』은 월 3회씩 발행하여 총 1년 반에 졸업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少年倶樂部 (1931),『少年倶樂部』, 18(1), n.p.
34) 管原亮芳 (2014), pp. 297~298.

www.kci.go.kr

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대외 홍보를 전개했다. 그중에서 (다)의 글은 당시 와세다대학에서 『와세다중학강의』 출신의 인사를 입신출세의 사례로 거론함에 따라 통신교육 기관으로서 장점을 부각하려 했던 것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본회 강의록의 "가치 있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명"으로써 "명망 있는 교외생 출신"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는 와세다대학 교수를 비롯해 소학교 및 중등교원, 판검사와 변호사, 각종 실업계의 중역과 직원 등의 이름, 숫자가 제시되어 있다. 물론 이런 홍보 방식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930년대 안내 책자에서도 『와세다중학강의』 출신의 성공한 사람들로 해군 대장, 와세다대학 정경학부장, 구세군 중장 등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시대가 나의 현재를 구축한 가장 유익한 수업 시대"라거나 "나에게 강의록은 그저 하나의 지도자"라는 이들의 말을 인용함에 따라 『와세다중학강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35] 이에 반해, 위에서 (라)의 글은 당시 대일본국민중학회에서 실질적인 사회 동향과 대중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신문 기사를 거론함에 따라 통신교육 기관으로서 장점을 내세우고자 했던 것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특히 중앙 언론인 도쿄 아사히신문 소재의 기사를 인용하여 대일본국민중학회의 『정칙중학강의록』이야말로 독학자의 학습에 최적화된 강의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전국 각지의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만, 중국, 조선에서 나온 신문 기사까지 인용하고 있기도 하다.[36]

이런 점에서 본교 출신의 인사를 활용한 와세다대학의 홍보 전략은 전문적인 통신학교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다분했다면, 광범위한 신문 기사를 활용한 대일본국민중학회의 홍보 전략은 권위적인 통신학교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다분했다고 볼 수 있다.

35) 「本講義を讀んで成功した人々」, 『早稲田中學講義 臨時增刊』, p. 16.
36) 「正則中学講義録に對する全國各新聞の批評」, 『正則中学講義録学制一覧 臨時增刊』, pp. 36~43.

www.kci.go.kr

IV. 통신교육의 원천과 대내외적 교육이념

앞에서 우리는 근대 일본의 통신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당대 통신학교에서 다른 통신학교와 상호 참조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운영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통신학교에서 다른 통신학교와 흡사한 균일화, 평준화의 원리를 지향함에 따라 통신학교로서 정체성을 구축한 한편, 다른 통신학교와 차별화된 상대화, 특수화의 원리를 지향함에 따라 통신학교의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근대 통신교육의 정체에 관한 또 다른 쟁점 사항으로서, 당대 통신교육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 대내외적 교육이념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실제로 당시 안내 책자에서는 공통적으로 문부성 중학교령에 준거하여 통신학교의 체계를 정비·운영하고 중학강의록의 체재를 쇄신·발행하려 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상 이는 엄밀히 말해 다음과 같은 교육이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당대 통신학교에서는 지식과 제도의 표준을 서구에 두려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서구 통신학교와 최신식 교수·학습법을 대외적 교육이념으로 삼고자 했고, 두 번째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선량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천황제 가족주의를 대내적 교육이념으로 표방하고자 했다. 실제 안내 책자의 내용을 통해 각각의 사항을 살펴보자.

> (가) **경쟁이 치열한 다이쇼 제2 유신에서 청소년이 반드시 입신출세를 이루고 성공하는 길은 무엇보다 우리 와세다대학 교외생이 되어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독학하는 것이다.** […]
>
> 그러나 선견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유익한 독학 기관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며 입신출세의 뜻을 세우지 않는 것은 보물의 산에 들어가 손이 비어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 날은 저물고 갈 길은 아직도 멀다는 탄성을 표출하는 시절이 도래한다.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애석하게도 세상의 열패자가 되어 평생 불행하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반해 열심히 독학한 청년은 저렴한**

www.kci.go.kr

학비로 강의록에 한가하게 내맡기고 공부한 결과 어느 사이엔가 입신출세하여 우승자가 될 수 있다.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입신출세하는 것과 같다」 부분[37]

(나) **미국의 교육기관은 최근 상당한 진보를 이뤘다. 지금 영국과 같은 각 방면의 대가를 불러 모아서 하나의 위원회를 조직하고 특별히 미국의 교육제도를 시찰하게 할 정도이지만, 그 위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경탄한 것은 미국 통신 교육기관의 발달이다.** 스크랜턴(Scranton)의 통신교육회에서는 강의록의 배포를 받는 회원이 무려 23만 5천 명이고, 회장 포스터(Foster) 씨는 재료의 모집, 교과서의 편찬을 위해 약 2천 명의 사람을 사용하고, 지방순회원 또한 1천 명이 있다. […] 뉴욕, 시카고, 피츠버그에도 마찬가지의 학교가 있다. 무엇이라도 3만 내지 1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보통의 통신교수 이외 특종 전문의 통신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 **도하의 고학생 및 지방에 있어 중학 입교의 편의가 없는 소년 사이에 큰 세력을 가지고 점점 미국의 통신교수 제도에 근접하고 있다.**

—「고학생의 복음(국민신문 소재)」 부분[38]

먼저, 위의 글들은 근대 일본의 통신학교에서 대외적으로 서구의 통신학교와 교수·학습법의 사례를 참조하여 통신교육의 이념을 형성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의 글은 와세다대학의 전신인 도쿄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데 기여하고 와세다대학의 강의록이 출현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감당한 실무자의 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39] 이 글에서 "학문은 성공의 길", "우승자와 열패자"와 같은 소제목을 달고 있다시피, 이치시마 겐키치는 승자와 패자라는 경쟁 구도에 따라 학문, 즉 독학을

37) 市嶋謙吉,「人の知らぬ間に立身出世斯の如し」,『早稲田中學講義 見本附規則書』, p. 11.
38)「苦學生の福音(國民新聞所載)」,『正則中学講義録学制一覧 臨時増刊』, p. 78.
39) 참고로 이치시마 겐키치(市嶋謙吉, 1860~1944)는 이른바 와세다대학 강의록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정학강의회(政學講義會)'의 강의록을 집필한 인물이다. 그는 초기 사립전문학교에서 정식 강의록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시 도쿄전문학교의 강의를 속기하여 1886년 5월에 발행하였고, 그것이 바로『정치과강의록(政治科講義錄)』이다. 이후에도 그는 와세다대학에서 회계 감독, 도서관장 등을 역임하는 등 대학 운영의 다방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廣木尙 (2016), pp. 217~219.

www.kci.go.kr

입신출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그가 보기에 당시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상당한 지위를 얻는 입신출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등교육"으로 대표되는 학문이 기본적으로 요청되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각종 물리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독학"은 "중등교육"의 학문을 대신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었다. 이치시마는 특히 와세다대학의 통신교수야말로 "중등교육의 지식을 배양"하게 하는 것은 물론 "건전하게 실용에 적합한 인물을 양성"할 수 있는 "유일한 독학 기관"이라 강조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이른바 진화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입신출세의 위기의식을 인생 전체의 성패와 연결하고자 한 부분이다. 말하자면, 그는 당대 청소년들이 남들보다 일찍 와세다대학의 강의록으로 독학을 시작한다면 언젠가 입신출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과 달리, 그렇지 못할 경우 허송세월하게 되어 점점 입신출세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그가 전자를 "우승자"로, 후자를 "열패자"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독학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경쟁의 결과에 따라 가치 평가하려는 진화론의 관점을 적잖이 환기하고 있다.

실제로 근대 일본 사회에서 본격적인 근대화를 추진할 때 주된 사상적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진화론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기존 봉건시대의 유습을 청산하고 사회 전반에서 문명개화를 이루기 위해 서구의 제도와 사상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생태 환경을 약육강식과 생존경쟁에 따른 적자생존의 현장으로 파악한 생물진화론과 이러한 원리를 인간 사회에 적용한 사회진화론은 근대 초기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일찌감치 일본 사상계에서는 찰스 다윈의 『인조론(人祖論)』(1881), 『동물진화론(動物進化論)』(1883), 에른스트 헤켈의 『생리학(生理學)』(1882), 『진화요론(進化要論)』(1888), 토마스 헉슬리의 『진화원론(進化元論)』(1889) 등 생물진화론자의 주요 저서가 번역·간행되었고, 그리고

www.kci.go.kr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평권론(社會平權論)』(1881), 『사회학의 원리(社會學之原理)』(1884) 등 사회진화론자의 주요 저서가 번역·간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지식인들이 경쟁을 인간 사회의 진보를 추동하는 원리로 합리화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이 제국주의를 토대로 하여 약소국을 침략할 수 있는 근거로 정당화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40] 바로 (가)에서 이치시마가 경쟁의 관점을 투영하여 독학과 입신출세의 관점을 바라보게 된 것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와세다중학강의』의 안내 책자에서는 근대 일본의 통신학교가 서구적 근대성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와세다중학강의』의 중추적인 실무자였던 다카다 사나에(高田早苗) 학장이 서구 교육 시찰 중 보낸 엽서를 수록하는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구 열강 황제의 초상사진과 그의 초상사진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41]

이때 (나)의 글은 근대 일본의 통신학교가 실제로 그보다 앞선 서구 통신학교의 운영과 교수·학습법의 사례를 참조하여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 글은 당시 대일본국민중학회의 동향에 관한 국민신문(國民新聞) 소재의 기사를 『정칙중학강의록』 안내 책자에 재수록하여 통신학교에 대한 독학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홍보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대일본국민중학회가 다른 통신학교에 비해 특별한 권위를 가지게 된 원천으로서 미국의 통신교수 제도를 거론하고 있다. 당시 미국의 교육기관은 각 방면의 전문가를 위원회로 조직하여 교육제도의 시찰을 진행할 정도로 상당한 진보를 이루고 있었고, 그중에서 “통신 교육기관의 발달”은 그 위원회

40) 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이쿠오 (2001), 『일본근대철학사』, 이수정(역), 생각의나무, 390~410쪽; 스즈키 사다미 (2026), 『일본 생명관의 탐구 제1권』, 김병진·박이진(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2~308쪽.

41) 「大禍亂の歐洲列强と高田學長」, 『早稲田中學講義 見本附規則書』, n.p. 참고로 다카다 사나에(高田早苗, 1860~1939)는 타 통신학교의 강의록을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도쿄전문학교의 강의 내용을 필기·출판함에 따라 와세다대학에서 통신강의록 사업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고, 이후에도 총장을 역임하는 등 주도적으로 통신강의록 사업을 이끈 인물이다. 廣木尙 (2016), p. 219.

www.kci.go.kr

로부터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도출해낸 성과였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뉴욕, 시카고, 피츠버그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학교가 설립되어 학교마다 3만 내지 10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미국 사회에서 통신교육이 대중화되고 있는 현실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미국 사회에서 중등교육과 같은 "보통의 통신교수" 이외에도 "사관학교", "판사학교"와 같은 "특종 전문의 통신학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통신학교 출신의 합격자들이 정규 과정의 합격자들보다 더 큰 사회적 신임을 얻는 사정을 알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대표적인 통신학교로 포스터(Foster)를 회장으로 하는,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Scranton)의 통신교육회 활동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통신학교는 1890년 신문 편집자였던 포스터(Foster)가 설립한 국제통신학교(ICS)를 가리킨다. 애초 포스터가 탄광 광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설립한 이 통신학교는 당시 미국의 성인 27명 중 1명이 수강할 정도로 대표적인 통신학교로 거듭났거니와 1904년에는 영국으로 학교를 확장할 만큼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이에 따라 (나)에서는 미국 통신학교의 실례를 들어 대일본국민중학회가 "미국의 통신교수 제도에 근접"해 있을 만큼 통신학교로서 권위를 가진다는 점을 표방하고 있다. 이런 통신학교 운영의 전략과 함께 이 글에서는 중학강의록의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교수·학습법의 측면에서도 미국 통신학교의 영향을 적잖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안내 책자에서는 "미국 최신의 통신교수법"을 참작하여 1년 반 기간의 속성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니와 특히 영어와 같이 통신교수의 어려움이 따르는 교과의 경우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의 방법을 구현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통신학교를 운영의 모범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시도는 다른 통신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를테면, 당시 와세다대학에서도 대학 확장(university extension)을 위한 교육 보급 운동의 일환으로 통신강의록

42) 요다위키 (https://yoda.wiki/wiki/Penn_Foster_Career_School, 2026. 9. 2. 접속)

www.kci.go.kr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당시 와세다대학에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계급을 대상으로 순회 강의와 강의록에 의한 통신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동향을 주시함에 따라 1910년에는 순회 강의와 통신강의록을 겸무하는 교외교육부를 신설하였다.[43] 이처럼 근대 일본의 통신학교는 서구의 통신학교와 최신 교수·학습법을 대외적 교육이념으로 삼고자 했다는 점에서 양자의 영향 관계를 타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 (다) **메이지 천황 폐하에게서 받은 문서 가운데에도 "길을 묻고 배움을 힘쓰는 일을 어찌 1, 2년에 그치겠는가. 바야흐로 필생의 힘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훌륭한 성덕을 갖추고 계신 메이지 천황의 예지는 이 우리 제국 청년이 마땅히 존봉(尊奉)해야 할 바이다.** […]
> 여기서 나는 우리 제국의 청년 제군도 모두 그 각자의 경우에 따라 위대한 희망을 일으키고, 꾸준히 부지런히 향상에 힘쓰고, 수양을 쌓게 된다면, 장래에 반드시 혁혁한 훈공을 달성하고, **그 당연한 보수로서 광휘 있는 생애를 보낼 수 있으며, 국가 사회를 위해서도 다대한 공헌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신뢰한다.**
> **즉 이 충효의 길에 적합한 까닭에, 학문은 그 길을 열기 위해 하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 「길을 묻고 배움에 힘쓰는 일을 어찌 1, 2년에 그치겠는가」 부분[44]

> (라) 삼가 귀회가 간행한 중학강의록을 읽었사옵니다. 이것은 바로 소학을 졸업하고 그 경우상 **스스로 중학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위해 직업의 여가를 가지고 중등교육을 받게 하여 건전한 국민을 양성하게 하려는 귀회의 주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이러한 통신교수는 근래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지식 도덕을 증진하는 것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알고 있사옵니다.** 이번에 기증해주신 중학강의록 제1학기 제1호는 중학의 각 학과를 강술하고

43) 廣木尙 (2016), p. 220.
44) 大隈重信, 「道を聞き學を勉む豈に一二年に止まらんや」, 『早稲田中學講義　見本附規則書』, pp. 2~3.

www.kci.go.kr

> 간절하게 하여 각 학과의 정도를 일정하게 하는 등 참으로 준비의 모자람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호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편술의 적절함을 얻고, 귀회의 주지를 일관함으로써 우리 교육계에 공헌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
> —「전 내각 세 대신의 찬사」 부분[45]

다음으로, 위의 글들은 근대 일본의 통신학교에서 대내적으로 천황제 가족주의라는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를 참조하여 통신교육의 이념을 형성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다)의 글은 와세다대학의 총장인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교과 이외에 독학자의 정신 수양을 도모하기 위해 행한 '청년훈화'의 일부로서, 와세다대학이 통신학교로서 표방하려는 이념적 지향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표면적으로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을 개인의 인격 수양과 장래의 이상 달성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그는 스스로 부단히 수양에 힘쓰고 "자기의 품성 인격"을 키워나간다면 어떠한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는 주체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보수로서 장래에는 "국가 사회"와 같은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생애를 누리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언급은 순수한 의미의 학문을 장려하기 위한 데 있다기보다는 당시 국가가 요구하는 선량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러한 그의 의도는 제목에도 나와 있는 "메이지 천황"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그의 의도가 단순히 천황의 말에 담긴 메시지, 즉 끈기 있는 배움이라는 평범한 지혜를 전달하기보다 "우리 제국 청년"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메이지 천황의 예지"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겨냥하듯 그는 글의 끝부분에서 결국 학문의 목적이 수양이라는 일반적 차원에 달려 있다기보다 "충효의 길"과 같은 특수한 국민도덕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주지

45) 小松原英太郎,「前内閣三大臣の賛辞」,『正則中学講義録学制一覧 臨時増刊』, p. 9.

www.kci.go.kr

하다시피, 당시 일본 사회의 교육이념이 '인의충효'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천황을 중심에 두는 국가주의 도덕을 확립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46] 『와세다중학강의』의 교육이념 또한 이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와세다중학강의』의 안내 책자에서는 통신학교의 운영 전략이나 중학강의록의 내용 구성 측면에서 천황제 가족주의를 교육이념으로 내세우고자 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테면, 통신학교 운영 전략의 측면에서 와세다대학에서는 천황이라는 절대 상징을 통신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근거로써 활용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와세다중학강의 견본 부 규칙서』에서는 총장 오쿠마 시게노부와 학장 다카다 사나에의 초상사진, 그리고 와세다대학 전경 사진과 함께 '금상폐하 동궁시대의 행차와 은사기념관(今上陛下東宮時代の行啓と恩賜記念館)'이라는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사진에는 당시 황실로부터 은사금을 받아 건설한 은사기념관을 배경으로 천황이 행차하고 있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천황의 상징은 와세다통신학교 10대 특전 중 하나로서 "내년 천황 즉위식"에 맞춰 그에 관한 "축하 기념 메달"을 증정하려는 혜택과 연결되어 있다.[47] 또한 중학강의록 내용 구성의 측면에서도 와세다대학에서는 천황을 중심에 두는 국가주의를 내면화시키려는 교과 내용을 편성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와세다중학강의 견본 부 규칙서』에 수록된 강의 견본 중에서 당시 수많은 지리교과서를 집필하여 초·중등교육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48] 야마카미 만지로(山上萬次郎)의 「지리강의」를 들 수 있다. 이 강의에서 야마카미는 대외 팽창을 통해 영토 확장을 꾀한 서구 열강과 마찬가지로 조선, 중국 등 인근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각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그가 영국 넬슨 장군의 초상과 함께 청일전쟁,

46) 박균섭 (1999), 「교육칙어와 일본근대교육」, 『일본학보』, 43, 548~557쪽.
47) 「千載一遇の好機」, 『早稲田中學講義 見本附規則書』, p. 7.
48) 한철호 (2017), 「明治期 야마카미[山上萬次郎]의 일본 지리교과서·부도 집필과 독도 인식」, 『도서문화』, 50, 253~257쪽.

www.kci.go.kr

러일전쟁에 참전하여 일본 제국주의 확장에 기여한 도고 키치타로(東郷吉太郎)의 초상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49]

이처럼 근대 일본의 통신학교에서 천황제 가족주의를 통신교육의 대내적 이념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대일본국민중학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라)의 글은 종삼위(從三位) 고마쓰바라 에이타로(小松原英太郎), 정삼위(正三位)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종삼위 남작(男爵)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등 대일본국민중학회에 대한 고위 정치인의 찬사를 활용하여 통신학교의 교육이념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내비친다. 이들의 글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여러 사정으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사람들이 통신교수를 통해 충분히 "일반 국민의 지식 도덕을 증진" 할 수 있다는, 통신교육의 사회적 효용성에 관한 신뢰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당대 통신학교 중에서 특히 대일본국민중학회야말로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중학강의록을 효율적으로 쇄신한 대표적인 통신학교로 손꼽고 있다. 물론 『정칙중학강의록』의 안내 책자에서 이러한 언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각계 유명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권위적인 통신학교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홍보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50] 거기에는 독학생을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통신교수를 통한 개인의 인격 수양을 공동체의 발전과 국가의 진보와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라)에서 "건전한 국민을 양성하려는 귀회의 주지"를 "일반 국민의 지식 도덕을 증진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는 부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일본국민중학회에서 건전한 국민을 양성하려는 통신교수의 목적이 당대 국민의 일상에 침투해있던 중앙집권적인 교육이념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떠올릴 법하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정치권 인

49) 「早稲田中學講義見本一山上理學士講述地理講義の一節」, 『早稲田中學講義 見本附規則書』, p. 27.
50) 管原亮芳 (2014), p. 300.

www.kci.go.kr

사 중 고마쓰바라 에이타로는 당시 문부대신을,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육군대신을, 고토 신페이는 체신대신을 맡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51] 이들이 문부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 교육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거라고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에서는 문부성을 중심으로 학제(學制)를 반포하는 방식으로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정비해갔다. 애초 일본 사회에서는 1870년 처음으로 학제가 반포된 이후 국가의 부강을 위해 서구의 학문을 중심으로 보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보다 일반 인민의 지식 향상을 위한 보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점차 학제가 수정되고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 공포, 1890년 교육칙어 발포 등을 거치면서 국가주의를 합리화하는 국민도덕론을 확립하고자 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52] 이처럼 근대 일본의 통신학교는 천황제 가족주의를 통신교육의 대내적 교육이념으로 삼고자 했다는 점에서 양자의 영향 관계를 타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Ⅴ. 결론 : 근대 통신교육과 안내 책자의 자료적 가치

지금까지 이 글은 근대 일본의 통신학교에서 간행한 안내 책자에 초점을 맞춰 당대 통신교육이 전개되어 간 방식을 고찰하고자 했다. 일본을 비롯한 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입신출세의 분위기 아래 중학교 입학 열풍이 커졌으나, 여러 사정으로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했으며, 제도권 바깥에서 그들의 향학열을 충족하기 위해 통신학교가 설립되고 각종 중학강의록이 발행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일본 학계에서는 당대 통신학교의 실체와 중학강의록의 성격에 관한 몇몇 논의가 이루어졌

51) 管原亮芳 (2014), p. 300.

52) 근대 일본에서 학제의 변화와 교육이념의 형성에 관해서는 쓰지모토 마사시·오키타 유쿠지 외 (2011), 351~426쪽; 김정희 (2019), 「일본 근대기 학제(學制)의 성립과정—학제의 교육이념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4(2), 23~35쪽.

www.kci.go.kr

으나, 당시 간행된 안내 책자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안내 책자는 '견본 부 규칙서'와 '임시증간'의 형태로 해당 통신학교의 입회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 간행되었으나, 거기에는 통신학교의 운영과 중학강의록의 구성이라는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내장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특히 근대 일본 통신학교를 대표하는 와세다대학의 『와세다중학강의 견본 부 규칙서』와 『와세다중학강의 임시증간』, 대일본국민중학회의 『정칙중학강의록 학제일람 임시증간』 발굴자료를 대상으로 시기별, 운영 주체별로 안내 책자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타진하였다. 첫 번째로, 당대 통신학교에서는 타 통신학교와 상호 참조 관계를 형성하여 통신교육의 균일화, 평준화뿐만 아니라 상대화, 특수화를 운영 전략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당대 통신학교에서는 서구 통신교육 및 최신식 교수·학습법과 문부성 교육령 및 천황제 가족주의를 대내외적 교육이념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안내 책자의 발굴자료를 소개하는 것과 함께 근대 일본 통신학교의 정체에 접근할 수 있는 쟁점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통신학교의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갈 예정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가타기리 요시오·기무라 하지메 외 (2011), 『일본 교육의 역사—사회사적 시각에서』, 이건상(역), 논형.

김정희 (2019), 「일본 근대기 학제(學制)의 성립과정—학제의 교육이념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4(2), 23~38쪽.

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이쿠오 (2001), 『일본근대철학사』, 이수정(역), 생각의나무.

박균섭 (1999), 「교육칙어와 일본근대교육」, 『일본학보』, 43, 547~565쪽.

스즈키 사다미 (2026), 『일본 생명관의 탐구 제1권』, 김병진·박이진(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쓰지모토 마사시·오키타 유쿠지 외 (2011), 『일본교육의 사회사』, 이기원·오성철(역), 경인문화사.

최호영 (2025), 「한일 중학강의록의 영향과 한국 근·현대 문학의 전개에 관한 시론(試論)—『(조선)중학강의록』의 구성원과 조지훈의 활동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26, 125~161쪽.

한철호 (2017), 「明治期 야마카미[山上萬次郎]의 일본 지리교과서·부도 집필과 독도 인식」, 『도서문화』, 50, 253~283쪽.

大日本国民中學會 (1907. 10), 『正則中学講義録学制一覧 臨時增刊』.

松尾正直 (1917), 「おお大日本國民中學講義録よ」, 『苦学十年』, 国民書院.

無記名 (1906), 「中学講義録の内容」, 『新國民』, 3(2), pp. 35~37.

明治學院 (1898), 『明治學院高等學部尋常中學部一覧』.

関本仁 (2024), 「『早稲田中学講義』に関する一考察—『早稲田高等女子学講義』との比較から」, 『民衆の感じる痛みに応えようとして生まれた自由大学』, エイデル研究所, 2024, pp. 151~161.

少年倶樂部 (1931), 『少年倶樂部』, 18(1).

菅原亮芳 (1994), 「中学講義録の世界」, 『研究報告』, 40, pp. 38~97.

_____ (2014), 「「独学」史講試論—中学講義録の世界をめぐって」, 辻本雅史編, 『身体・メディアと教育』, 日本図書センター, pp. 293~309.

天野郁夫 (1996), 「独学と講義録」, 『日本の教育システム—構造と変動』, 東京大学出版会.

青山學院 (1898), 『青山學院尋常中學部高等普通學部一覧』.

早稲田大學 (1914. 8), 『早稲田中學講義 見本附規則書』.

早稲田大學出版部 (1935. 5), 『早稲田中學講義 臨時增刊』.

www.kci.go.kr

五十嵐力 (1905),『文章講話』, 早稲田大学出版部.
天使救世軍 (1906),「中学講義録の無責任」,『学生タイムス』, 7, pp. 8~9.
廣木尙 (2016),「(2016年度 春季企画展) 早稲田の通信講義録とその時代 1886-1956」, 早稲田大学大学史資料センター, pp. 213~243.
요다위키 (https://yoda.wiki/wiki/Penn_Foster_Career_School, 2026. 9. 2. 접속).

www.kci.go.kr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rrespondence Education in Modern Japan and the Status of Guidebooks -
Focusing on the Guidebooks *Waseda Middle School Lecture* and *Seisoku Middle School Lecture Note*

Choi, HoYoung (Kangwon National Uni., Associate Professor)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way correspondence education developed during that era by focusing on guidebooks published by correspondence schools in modern Japan. This paper aimed to derive key issues that can approach the development of modern Japanese correspondence education by unearthing guidebooks from Waseda University and the Dai-Nippon Kokumin Chugakukai, which represent modern Japanese correspondence schools. First, this paper examined how correspondence schools of the time formed mutual reference relationships with other correspondence schools and put forward not only the uniform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correspondence education but also its relativization and specialization as operational strategies. Second, it examined how correspondence schools of the time sought to adopt Western correspondence education and the lates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s well as the Ministry of Education's educational ordinances and the imperial familyism, as their educational ideology.

Keywords: Correspondence Education, Self-taught Learner, Correspondence School, Middle School Lecture Note, Guidebook, Specialization Strategy, Educational Ideology

논문 투고일: 2026년 09월 09일
심사 완료일: 2026년 10월 02일
게재 확정일: 2026년 10월 15일

www.kci.go.kr